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조합주의의원칙에관한선언

FAUD 제 12 차총회에서루돌프로커의발제문

루돌프로커

루돌프로커
조합주의의원칙에관한선언
FAUD 제 12 차총회에서루돌프로커의발제문
1919. 12. 27~1919.12.30

[https://www.academia.edu/39134774/
Rudolf_Rocker_Syndicalist_Declaration_of_Principles](https://www.academia.edu/39134774/Rudolf_Rocker_Syndicalist_Declaration_of_Principles)

kr.theanarchistlibrary.org

1919. 12. 27~1919.12.30

1919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 드레스데너 스트라세에 위치한 “루이젠슈테티셰스 레알 콤파나지움”에서 개최된 독일 자유노동조합 12차 총회에서 루돌프 로커동지가 제출한 발제문임.

자본주의 질서라고도 불리는 현재의 사회 질서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예속에 기초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소유권”에서, 재산의 독점에서, 권력의 독점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난다.

토지나 생산수단을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기에, 생산계급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기술을 소유주들에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상당부분이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임금노예의 지위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생산의 과정과 조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생산의 과정과 조직은 전적으로 자본가의 결정권 아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생산이 인민의 요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품의 교환과 분배 역시 동일한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이 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고 소수의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숨겨진 목적이 생산자의 착취라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자본주의 체계의 실제 목적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과학적 성취와 사상적 진보는 독점자본가에 계층 속된다. 기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을 때마다 소유계급의 부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생산계급과, 사회 다수 구성원의 사회적 불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로 다른 민족 그룹의 자본가들이 시장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것은, 끝나지 않는 갈등과 국내외적 위기의 영구적 원인을 만들어 내고, 이는 파괴적인 전쟁으로 주기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들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의 하류 계급이 짊어져야 한다.

사회의 계급적 분열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잔인함. 이러한 자본주의 질서의 특징들은 또한 인간의 성격과 도덕 감각에 퇴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인간이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호 부조와 공동체적 연대감이라는 귀중한 특질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문명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어받은 귀중한 유산은 범죄, 매춘, 그리고 다른 모든 사회적 부패의 징후로 드러나는 병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징과 습관으로 대체된다.

은이름이아니라그에담겨있는사상라는사실을잊지말자. 대부분의경우 당에특정한이름을강요하는사람들은우리의적이다. 일상생활의투쟁에서사용되는단어들을순수한어원적견지에서본다면그단어들은형언할수조차없이불쾌한것이아닌가.

이에대한가장좋은예는유럽에떠도는유령이되어버린볼셰비즘이라는단어가될것이다. 엄밀히말하면이단어는다수예의한통치라는것이상도이해도아니다. 하지만“사회주의”라는단어는“코뮌주의”와마찬가지로, 공동체에관한사상을의미할뿐인것이다.

연합이라는것말고다른것을의미하지않는단어“조합주의”에있어서도이는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조합도, 조합주의적인조합도존재한다. 그러므로조합주의를구성하는것은단어그자체가아니라그사상이다. 조합주의라는단어가인민의적들에게협오스럽게들린다면, 이는조합주의운동의열망과방법론이지배계급에위협해보인다는사실에서비롯하는것이다. ” 기독교인”이라는단어가일반적으로금지되었던시절이있었다. 그리고오늘날우리가우리스스로를가톨릭사제자유협회라고부른다고생각해보라. 그결과는완전히똑같은것이다.

” 조합주의” 라는단어를단호하게고집할필요는없다. 하지만, 미래의어느날, 우리가오래된, 역전의이름을유지해야하는상황이있을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운동의본질은국가적일뿐만아니라국제적인것이기도하다. 독일에서눈살을찌푸리게하는그조합주의가, 다른국가에서는무산계급의통일된경제조직이되었다. 그리고그렇기에조합주의는독일국경을넘어형제들과우리를동맹시키는인정의상징으로남아있다. 이는실질적인이유를들어조합주의라는언명에대하여계속반대하는동지들이이를생각해주었으면한다.

사적소유의발달과그에수반하는계급적반목과함께, 소유계급은그들의특권을보호하고인민을억압하기위한기술적수단을가지고있는정치조직, 즉국가의긴급한필요성을확인했다. 국가는결과적으로사적독점과계급분할의산물이기때문에, 일단국가가존재하는한, 독점과계급차별을지속하기위해어떠한속임수와폭력적수단도거리낌없이사용한다, 결과적으로국가는국민들의경제적, 사회적예속의영속성을보장한다. 국가는인류문명의착취를위한거대한기관으로자리매김했다.

군주제건공화국이건, 전제주의건민주주의건, 국가의외형이무엇이건이역사적사실은아무것도바뀌지않는다. 모든형태의국가들은단지각각의착취적경제체제에따라서로다른정치적형태를제시할뿐이며, 이것은그들의외연은다르더라도내면은완전히동일하게도단지재산계급의조직적폭력의구현에불과하다는것을의미한다.

국가의발전과함께중앙화 (위에서아래로명령을하달하는인위적조직) 의시대가시작되었다. 교회와국가는이시대의첫번째대표주자였고, 오늘날까지도중앙화의주된지지자로남아있다. 그리고인간생활의모든분야를권위에종속시키는것은국가의본성이기에, 중앙화의방법론은국가가그기능의영역을확대할수록점점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한다. 결국, 중앙집권주의는모든인민의사업, 자물쇠, 재고, 통의배치의권리를이전하는바로그체제가가장극단적으로구현된것이다.

그결과, 개인은괴물같은기계장치이고장난통나무바퀴처럼위에서조종되고이끌어지는꼭두각시가된다. 공통의이익을소수를위해양보해야하고, 위에서부터의명령에개인적주도권을이양해야하며, 균질성과내적책임을철저한규율로, 인성교육을생각없는훈련으로바꿔야한다. 그리고이모든것은현존하는체제의기초를흔들지않고, 자본주의고용시장에서기꺼이착취의대상으로남아있는충성스런신민들을길러내는데에그목적을둔다.

이러한방식으로국가는모든진보와문화적발전에가장강력한장애물이되고있으며, 노동자들의해방시도를가로막는소유계급의가장강력한방어벽이되고있다.

조합주의자들은위에서논의한사실에대하여명확하게인지하기에, 원칙적으로모든형태의독점적경제를적대한다. 그들은토지, 노동, 원자재및모든사회적자원의공동체적소유를위해노력한다. 조합주의자들은자유로운, 즉국가가없는코뮌주의를기반으로, ” 각자의능력에따라, 각자의필요에따라!” 라는표어에따라전체경제생활을재조직하고자한다.

조합주의자들은사회주의는궁극적으로문화의문제이며, 이는아래로부터, 인민의창조적건설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 그렇기에조합주의자들은소위국유화라고불리는수단을거부한다. 조합주의자들은국유화가최악의자본주의라할수있는국가자본주의를불러올뿐, 결코사회주의로향할수없다고바라본다.

조합주의자들은사회주의경제질서는정부의결정과규약과규제에의하여조직될수없으며, 각생산분야에서정신적·육체적으로노동하는모든사람들이자신과공통의이익을위해, 자유로운상호협약에기초한조합의형태를통하여, 전체경제유기체중일부인공장과생산의부문에서각개별기업의경영을확보함으로써만, 조직될수있다고확신한다.

조합주의자들은그이념과소속과무관하게, 정당들은사회주의를건설하는과정을책임질수는없으며, 이작업은노동자들의경제투쟁조직(캄포르가니첸)에의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고믿는다. 이러한이유로조합주의자는노동조합을자본주의사회의일시적인산물이라보지않는다. 노동조합은미래의사회주의사회에서경제조직의핵심이다. 이러한노선을따라, 오늘날조합주의자들은그들의위대한역사적임무를위한, 임금과노동의관계를매일개선하기위한투쟁에적합한조직의형태를모색하고있다.

각지에서노동자들은각각의직업에따라혁명적노동조합에가입하고있다. 이노동조합에는중앙조직이없고, 자체자금을관리하며완전한자율성을가지고있다. 서로다른업종의지역노동조합은지역연합활동과혁명선전의중심인노동교환소(아르바이테르보르젠)에모인다. 지역의모든노동교환소는그들의힘을결집하여총체적사업을구성하기위해노동교환소의총연맹으로통합된다.

또한, 각조합은국가전체에서동일한직종의조합들과연방적으로연결되어있으며, 이는인접직종과도연결되어대규모산별연을형성한다. 이렇게, 총연맹과산업연맹은전체사회생활이돌아가는두개의극이된다.

혁명이승리하고, 노동자들이사회주의를건설하는문제에직면하게될때가온다면, 모든노동교환소는일종의통계국으로변하여주택, 식량, 의류등의관리를인계받게될것이다. 노동교환소는소비의조직을담당하게될것이며, 노동교환소총연맹은국가의전체소비를계산하고가장간단한방법으로구성하는것을간단히수행할수있을것이다.

산별연맹은그들의지역조직과사업장평의회도움을받아현재의모든생산수단, 원자재등의관리를인계받고, 개별생산그룹과회사에필요한모든것을제공하는과업을맡게될것이다. 한마디로, 사업장평의회를통하여기업및작업장을조직하고, 산업과농업의연방적결합을통하여일반적생산을조직하고, 노동교환소를통하여소비를조직하는것이다.

조합주의자들은모든형태의국가조직을적대하기에, 소위정치권력의쟁취를거부하고, 오히려모든정치권력의급진적인제거가진정한사회주의사회질서의첫번째조건이라본다. 인간에의한착취는인간에의한지배와가장밀접하게얽혀있기때문에한쪽이사라지면다른한쪽이없어질것이다.

조합주의자들은근본적으로모든형태의의회활동이나입법청원에의참여를거부한다. 이는조합주의자들이가장자유로운선거기구조차현사회의현저한불균형을완화할수조차없다고바라보고, 의회체계의총체는거짓과사회적불공정의체계를법적으로수인하기위해건설되어노예가스스로에게법적으로노예의낙인을찍게하는것뿐이라고바라보는데에서비롯한다.

조합주의자들은독단적으로그어진정치적국경을거부한다. 조합주의자들은민족주의가현대국가의국교라바라보고소위민족적단결을확보하려는모든시도를거부한다. 민족적단결은단지소유계급의지배를은폐하는데에만사용될수있기때문이다. 조합주의자들은지역적성격의차이만을인정하며, 모든문화적그룹이자신의문제를스스로처리하고, 독특한문화적필요를자신의방법에따라다른그룹과인민연방과의공고한연대의합의에맞추어충족할수있어야한다고요구한다.

조합주의자들은직접행동에공고하게기반하고있으며, 그들의목적인경제적독점과국가의폭압의해체와충돌하지않는인민의모든노력과투쟁을지지한다. 대중의정신을교육하고, 인민들을경제적투쟁의조직(캄포르가니첸)으로단결시켜경제적행동, 나아가사회적총파업을통해인민을임노동과근대계급국가로부터해방으로나아가기하는것이조합주의자의과업이다.

내가더욱자세하게원칙을선언하고자하는것은, 특히지금그렇게하려는것은, 요즘과같은동요의시기에는우리모두가조합주의의교훈과전술적방법에대해가장분명하고확실한형태로표현할필요를느끼고있기때문이다. 우리운동의이름에대해많은논쟁이있어왔고여기있는많은동지들은” 조합주의” 이라는단어를불쾌하게여겨왔다. 하지만중요한것